

유튜브 5·18 왜곡 영상 200건…올들어 급증

언론·유튜브 모니터링 보고회
보수 채널 4곳서 집중 제작
처벌 조항 방지법 통과 시급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가짜뉴스는 올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5·18 역사 왜곡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You Tube)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발의 상태인 5·18 왜곡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5·18 기념재단, 서울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공동주관으로 '2019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선 5·18민주화 운동 신문·방송 및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월별(3~9월)·주제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5·18 망언, 5·18진상조사위 구성,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모니터링 결과와 2019년 유튜브 5·18가짜뉴스 모니터링 현황·분석 결과 등이 발표됐는데, 유튜브의 역사 왜곡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튜브 5·18 왜곡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2003~2019년까지 총 200건이 적발됐으며, 대표적인 채널은 'Sedame Tube 잡깨방송' (50건·25%), '지만원 TV' (31건·16.5%), '조갑제TV' (33건·15.5%), '뉴스타운TV' (18건·9%) 등이었다.

유튜브 영상 제작·업로드 시기는 올해에만 49%인 98건이 제작·업로드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조사 이후 가장 많이 제작된 것이라는 게 조사기관의 설명이다. 2017년과 2018년만 보더라도 각각 20건과 19건으로, 20건을 넘지 않았다.

이날 발표자들은 올해에 유튜브 왜곡 영상에 급증한 이유로 올해 초부터 쏟아진 일부 국회의원의 5·18 망언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추정했다.

왜곡 유튜브들은 조화수도 적게는 1000건에서 많게는 100만여 건을 기록했다. 특히 100만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는 뉴스타운TV의 '5·18은 폭동이었다! 전남도청 근무 공무원 육성 증언'과 프리덤뉴스의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 등 2건으로, 5·18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신문·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조선희 서울 민언련 활동가는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외국 회사여서 방통위가 삭제·차단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면서 "이러한 왜곡 영상을 제작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왜곡방지법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모니터링을 담당한 김옥령 광주전남 민언련 활동가는 "유튜브에서 4개 정

도의 채널이 주도적으로 왜곡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극우·보수 채널들이 이 내용을 지속·확대 재생산하는 추세로, 이런 연결고리가 고착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한은영 박사는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모니터링 결과 녹취자료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에 전달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률적으로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5·18 관련왜곡·편향·가짜뉴스 총 127건(웹사이트 게시물 17건·유튜브 영상 110건)을 적발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웹 사이트 게시물 17건 중 9건만 접속차단이 됐고 유튜브 110건 중 시정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민주길' 기공 4일 오후 전남대 용봉관에서 열린 '민주길' 기공식 이 후 5·18 관련 단체와 정병석 총장, 교수, 학생 등이 조성된 민주길 코스를 걷고 있다. 민주길은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11개소를 3개 노선·5km로 잇는 공간 재생 사업으로 5·18 40주년에 맞춰 완공될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북구의회 '허위출장' 의원 4명 윤리위 회부

광주 북구의회가 4일 '허위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소속 구의원 4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의원 정계 요구 안전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북구의회는 20명 중 5명이 동의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이 있다. 북구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9월 26~27

일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의회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에 의원들을 회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은 당일 자책정지 3개월, 김건안 운영위원장은 당직 자책정지 3개월 등 징계를 결정했고 다른 초선 의원 2명은 서면경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자금대출 못갚고 사망하면 상속재산 넘는 대출금 면제

교육부, 법령 개정 착수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채무를 대부분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이 채무 상환 의무를 떠안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자만 3239명에 이른다. 또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한

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안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70%를 면제한다.

대출 원금 외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제 심사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07:25

달뜨

13:40

해진

17:20

달짐

00:27

두툼한 옷차림 필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 낮겠다.

광주	구름많음	1/4	보성	구름많음	-1/5
목포	구름많음	0/3	순천	구름많음	2/7
여수	구름많음	5/8	영광	차차흐려져	-3/3
나주	구름많음	0/4	진도	차차흐려져	4/5
완도	구름많음	3/6	전주	구름많음	-2/3
구례	구름많음	0/5	군산	구름많음	-3/2
강진	구름많음	0/5	남원	구름많음	-2/4
해남	구름많음	1/5	흑산도	맑은 뒤 비/눈	6/6
장성	구름많음	-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면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1.5~3.0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5~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2.0~4.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45	08:01
	13:35	20:39
여수	09:02	03:23
	22:49	16:08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5/4	-4/7	-1/9	-2/9	0/11	2/11	2/11

전남 서해안·내륙 일부지역 오후부터 눈

5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서해안과 내륙 일부지역에 눈이 내리고, 한파가 찾아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해수면의 온도 차이로 생긴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5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내륙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적설·강수량은 1cm 내외다.

또 이날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은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전남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5도(체감온도 영하 7~2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영하 1도로 전날보다 3~5도 더 내려가 추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광주에 올 겨울 첫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없었다.

유인관측소에서 관측된 올해 첫눈은 지난해(12월 7일)보다 나흘 빠르고, 평년(11월 25일)보다 여드레 느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후원 감사"...올 기부금·물품 6억원 넘어서

광주시 남구는 "올 한해 남구청에 접수된 각종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의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6억 137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복지정책과에 접수된 2019년 현금 및 현물은 후원 지역 내 기업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동호회,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총 95차례에

걸쳐 총액 4억 4300여만원 상당이다. 남구 가족사랑 연합 모금회 계좌에도 9400여만원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모아진 현금과 쌀, 연탄, 연극 티켓, 먹거리, 생활용품 등은 지역 내 취약계층 세대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쓰여진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